

SK이노베이션, 여성인력 복지 주력

여성리더십 프로그램에 워킹맘 지원 확대 ... 육아휴직 부담도 경감

국내 최대의 정유기업인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여성직원의 복지 향상에 주력해 주목된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하반기부터 사내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워킹맘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여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선 여성 관리자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여성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10명으로 구성된 <여성 리더십 포커스 그룹>을 가동해사내 여성인력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내 여성인력과 관련한 다양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여성인력 관리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 여성 관리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해 여성이 스스로 필요한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과거 유공이 전신인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계의 특성상 전통적으로 여성인력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에서 여성 리더십 강화 제도는 시사점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7월1일부터 워킹맘 지원제도를 신설해 여성인력의 출산과 육아 문제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있다.

특히,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신설해 임신초기와 출산 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했다. 기존의 의무화된 3개월 출산휴가와 별도로 육아휴직도 최소 3개월, 최대 1년간을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성인력이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후임을 충원시켜 기존 현업부서의 부담은 물론 여성인력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업무평가 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휴직자는 해당연도 6개월 이상 휴직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25>